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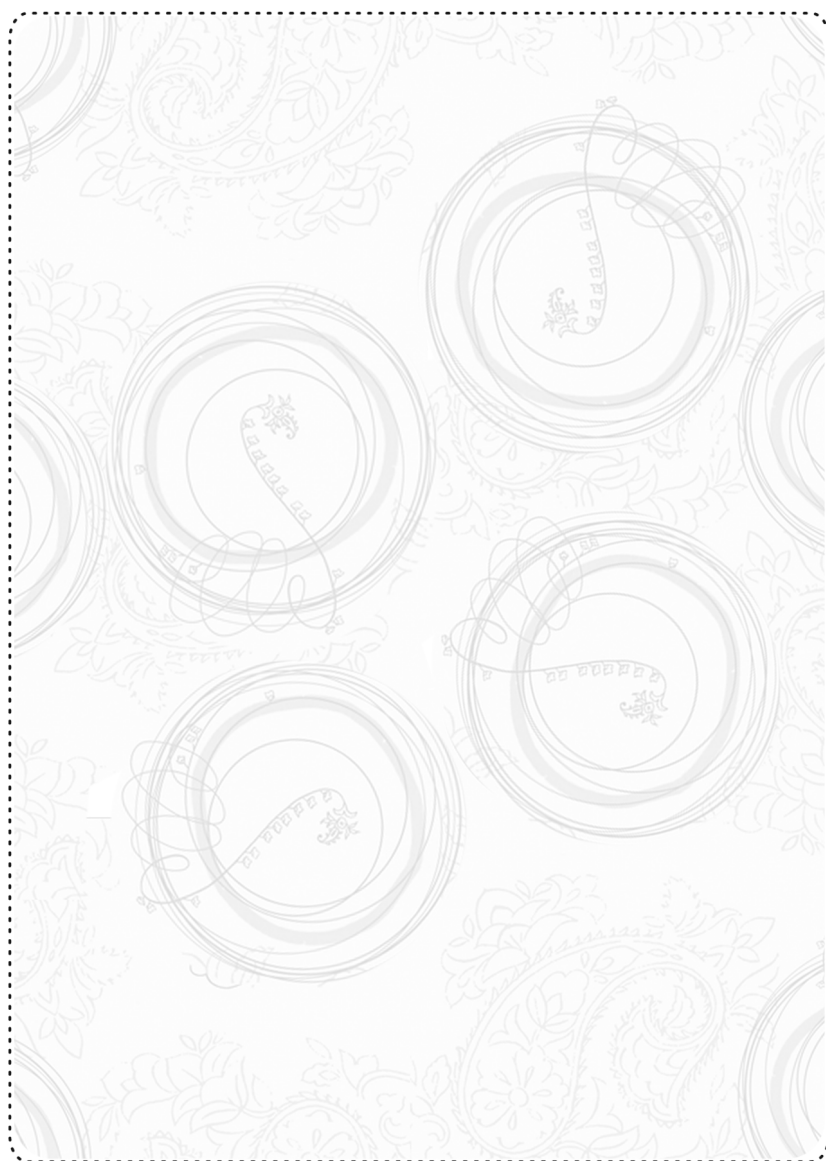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2009-3-8

한국어 · 국어 · 한글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국어교육 교재



국립국어원



차례

국립국어원 소개 • 4

- 01. 한국어와 한글 11
- 02. 한글의 우수성 13
- 03. 한국어의 특징 17
- 04. 한국어, 한국어 교육 21
- 05. 한국어 교육용 교보재 23
- 06. 한국의 4대 어문 규범 25



국립국어원 소개



1. 연혁

국립국어원은 1984년 5월에 ‘국어연구소’로 출발하였다. 1991년 1월에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8월에 현 소재지인 강서구 방화동으로 청사를 옮겼다. 이후, 2004년 11월에 현재의 명칭인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었다.



2. 설립 목적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범을 주관하고, 국어사전을 편찬하여 교양 있고 바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어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여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3. 대국민 편의 제공 사업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가 정책을 수행하며,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검색 가능.

(2) 가나다 전화(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oz121@korea.kr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6) 국어문화학교 운영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운영함.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추이

연도	과정	원내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합계		244개 반	128회	14,171명	1,427회	124,765명

(가) 교육 과정 안내

① 국어전문교육과정

㉠ 국어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4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문장부호 사용법 포함), 표준어, 표준발음,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바르게 쓰기, 글쓰기 지도, 우리말 다듬기, 대화와 인간관계, 한글의 제자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47
 -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문장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구별해야 할 말,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연습,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의 표현, 국어 논술의 이해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②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4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문장부호 사용법 포함), 띄어쓰기,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대화와 인간관계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사로 및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

③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7) 국어문화원 지정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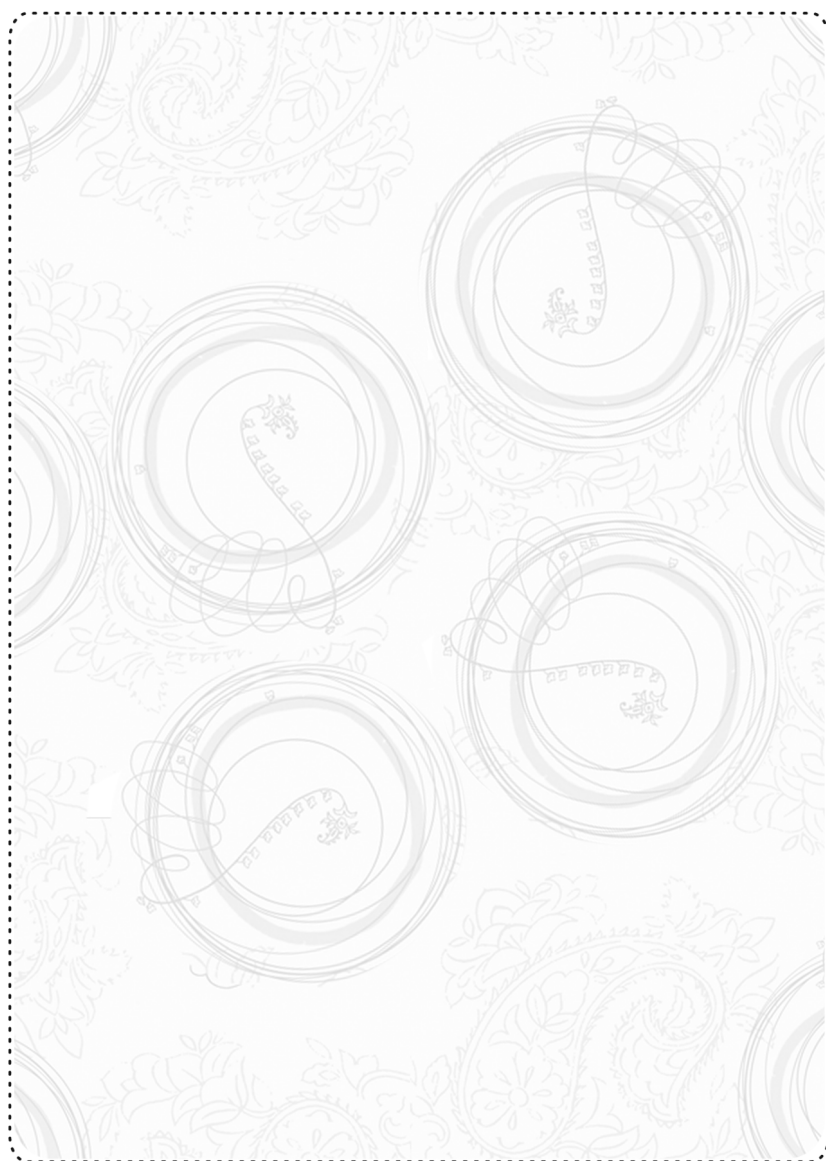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인 국어생활 상담망을 구축함. 현재 전국 16개소의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기관의 공문서 · 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 · 말하기 지도, 어휘력 · 문장력 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

❖ 전국 국어문화원 지정 현황(2009. 4. 현재)

지역	명칭	소재지	대표자 (원장)	연락처
서울·경기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http://barunmal.org	남영신	02)735-0991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 대학교 인문관 627호 http://munjang.net	박창원	02)3277-3250 3277-4056
	한국방송 한국어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http://korean.kbs.co.kr/main.php	김성수	02)781-3838



강원도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http://kwnu.kr	남기탁	033)250-8137 250-8133
충청 북도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http://korean.chungbuk.ac.kr	조항범	043)261-3450 276-990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http://www.koreanlab.or.kr	김희숙	043)229-8311
대전· 충청 남도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http://www.smukorean.net	구현정	041)550-5391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 http://hankls.hnu.kr/	강정희	042)629-8345
전라 북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http://korean.jj.ac.kr	류수열	063)220-3095 220-3096
광주· 전라 남도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http://kor.chonnam.ac.kr	서상준	062)530-0313
대구· 경상 북도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http://knukorean.knu.ac.kr	백두현	053)950-7498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http://ccrk.yu.ac.kr	서종학	053)810-3561
부산· 경상 남도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http://kor.donga.ac.kr	엄정호	051)200-7180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http://ckc.gsnu.ac.kr	김용석	055)751-619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http://korea.ulsan.ac.kr/	유필재	052)259-2647
제주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http://malguel.cheju.ac.kr	강영봉	064)754-2712 754-2710



이

한국어와 한글

우리 주변에는 ‘한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한국어란 한민족이 사용하는 말을 지칭하는 것이고,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 글자, 즉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글은 1443년(세종 25년) 음력 12월에 조선 4대 임금인 세종이 직접 창제하였다.¹⁾ 처음 창제되었을 때 한글의 명칭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었다. 그 뒤, 집현전 학사들이 여기에 해석과 용례 즉 해례(解例)를 붙이고, 또 여러 차례 훈민정음을 시험적으로 써본 뒤,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上旬)에 반포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주목적은 백성들이 글자를 쉽게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일부 계층에만 전승되어 오다가, 개화기 무렵부터 전 국민에게 폭넓게 보급되었다.

한편, ‘훈민정음’은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글자인 훈민정음을 설명한 책을 일컫기도 한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원본은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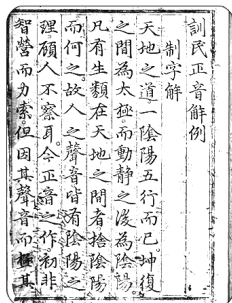


* 세종 이도의 어진

1) 세종대왕의 본명은 도이고 자는 원정이다. 시호는 장헌이며 태종의 셋째 아들로 원경왕후 민씨 소생이다. 1408년 충녕군에 봉군되고 1413년에 대군에 되었으며 1418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같은 해 8월에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세종이란 원래 묘에 붙이는 호인 묘호이므로 세종대왕의 본명이 ‘이도’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불리는데, 이 책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훈민정음을 '훈민정음'이라 하지 않고, '한글'이라고 한다. '한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다. 선생은 "한글배곧", "한(나라)글"이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하는데, '한글'을 '크고 바르며 세상에 둘도 없는 글, 대한의 글'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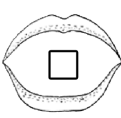
*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의 우수성

한글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한글만의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닿소리[초성]의 기본자는 ‘ㄱ, ㄴ, ㄷ, ㄱ, ㅇ’으로 이들은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훈민정음 닿소리의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혀가 윗잇몸에 닿는 형상	입술 모양의 형상	이의 형상	목구멍의 형상

창제 당시에 닿소리 글자는 기본이 되는 글자인 ‘ㄱ, ㄴ, ㄷ, ㄱ, ㅇ’에 획을 더하여 ‘ㅋ, ㆁ, ㅌ, ㅍ, ㅈ, ㅊ, ㅍ, ㅎ’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같은 발음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을 비슷한 모양의 문자로 체계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게 되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탁월한 문자가 된 것이다.

❖ 달소리(초성) 글자 생성 원리

기본자		가획자	
ㄱ	→	ㅋ	
ㄴ	→	ㄸ → ㄹ	
ㄷ	→	ㅌ → ㅍ	
ㄹ	→	ㄺ → ㅊ	
ㅇ	→	ㅇ → ㅎ	

홀소리[중성]의 기본자는 ‘·, 一, 丨’로 이들은 하늘의 둥근 모양[·]과 땅의 평평한 모양[一],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丨]을 본뜬 것이다.

❖ 훈민정음 홀소리의 기본자

·	一	丨
天	地	人
하늘(둥근 모양)	땅(수평 모양)	사람(수직 모양)

홀소리 글자는 기본이 되는 글자인 ‘·, 一, 丨’를 바탕으로 ‘一’와 ‘·’를 합하여 ‘ㄱ, ㄴ’를 만들고, ‘丨’와 ‘·’를 합하여 ‘ㄷ, ㄹ’를 만든 후, 여기에 다시 ‘·’를 한 번씩 더하여 ‘ㄲ, ㅋ, ㅌ, ㄺ’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글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ㄴ, ㄷ, ㄹ, ㅌ, ㅍ, ㅊ’ 등을 만들었다.



❖ 홀소리(중성) 글자 생성 원리



ㅡ	+	•	→	ㅏ, ㅑ
ㅣ	+	•	→	ㅓ, ㅕ
ㅜ	+	•	→	ㅠ
ㅗ	+	•	→	ㅛ
ㅛ	+	•	→	ㅜ
ㅓ	+	•	→	ㅕ
ㅕ	+	•	→	ㅗ
ㅗ	+	ㅓ	→	ㅛ
ㅑ	+	ㅕ	→	ㅓ
ㅓ	+	ㅗ	→	ㅕ
ㅓ	+	ㅓ	→	ㅕ
ㅕ	+	ㅓ	→	ㅕ

이처럼 한글은 몇 개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인 글자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훈민정음에서 글자를 생성하는 방식은 현대의 과학 또는 수학의 생성 원리에도 부합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24 자모를 합성하면 무려 11,172 자의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글은 24 자모만을 익혀, 규칙에 따라 글자를 생성하면 되니 이러한 사실은 한글이 갖는 특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글은 컴퓨터에서 닿소리와 홀소리의 입력 방식이 간편하고 자유로우며 닿소리와 홀소리의 입력 속도가 놀랄 정도로 빠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휴대 전화로 문자를 보내면 닿소리와 홀소리의 입력 방식이 간편하여 다른 문자에 비해 매우 빠르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한글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특징은 음운, 어휘, 문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의 특징

• 음운의 특징

- (1)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 (2) 다른 언어보다 마찰음이 적다.
- (3) 음절 끝에서 파열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 (4)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 (5) 두음 법칙이 실현된다.
- (6)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 어휘의 특징

- (1)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다.
- (2) 감각어가 발달되어 있다.
- (3)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 (4)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해 있다.

• 문법의 특징

- (1)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 있다
- (2) 단어 형성법이 발달해 있다.
- (3)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 (4)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 (5)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먼저, 한국어의 음운상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국어는 대부분의 서양 언어와는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한다. 이는 서양 언어들의 자음이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로 대립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한국어 화자는 ‘부부’라고 발음할 때, 안올림소리인 앞의 ‘ㅍ’과 올림소리인 뒤의 ‘ㅍ’의 소리를 변별하지는 못하지만, ‘불, 뿔, 풀’에서처럼 ‘ㅍ’, ‘ㅃ’, ‘ㅍ’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잘 인식한다.

둘째,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마찰음의 수가 파열음의 수보다 적다. 영어의 마찰음에는 s, z, f, v, th[θ, ð], sh[ʃ], [ʒ], h 등이 있지만, 한국어의 마찰음에는 /ㅅ, ㅆ, ㅇ/밖에 없다.

셋째, 한국어의 파열음은 음절 끝에서 파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술’을 [숯], ‘앞’을 [압], ‘발’을 [반]으로 발음한다.

넷째, 한국어는 첫소리에 여러 닿소리가 함께 올 수 없다. 영어에서는 ‘sprite’와 같이 첫소리 위치에 여러 닿소리가 함께 올 수 있지만, 한국어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어는 첫소리 위치에 ‘ㄷ’이나 ‘ㄴ’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년세(年歲), 력사(歷史)’를 [연세], [역사]로 발음하고, ‘연세, 역사’로 적는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여섯째, 한국어는 ‘ㅏ, ㅑ’는 ‘ㅏ, ㅑ’끼리, ‘ㅓ, ㅕ’는 ‘ㅓ, ㅕ’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있다. 이를 흔히 모음조화 현상이라 한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살다’라는 단어는 ‘살아, 살아도, 살아라’ 등과 같이 활용하고, ‘죽다’라는 단어는 ‘죽어, 죽어도, 죽어라’로 활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결합하여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어휘상의 특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아주 많다. 한자어는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갑오개혁 때까지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는 많은 한자어가 실려 있다.

둘째, 한국어는 다양한 외국어가 들어와 외래어로 굳어진 것이 많다. 한국어의 외래어는 ‘사탕(← 沙糖, 중국어), 남비(← なべ, 일어), 탑(← 塔←



stupa, 범어), 빵(pão, 포르투갈 어), 남포(←lamp, 영어), 쓰봉(←jupon, 불어), 템포(←tempo, 이탈리아 어), 아르바이트(←Arbeit, 독어)처럼 여러 외국어에서 들어왔으며,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래어 중에는 ‘담배’처럼 그것이 외래어가 아니라 토박이말로 인식되는 것도 있다.

셋째, 한국어는 다양한 감각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 화자들은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르끼리하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끼리하다, 노릇노릇하다, 섯노랑다’ 등과 같은 말의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알고 잘 부려 쓴다.

넷째, 한국어는 음성상징어가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그래서 한국어 화자들은 ‘딸랑딸랑’과 ‘떨렁떨렁’, ‘줄줄’과 ‘줄줄’ 따위의 어감 차이를 알고 잘 부려 쓴다.

다섯째, 한국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예컨대, 영어 ‘father’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님, 아버지, 춘부장, 부친, 선대인’ 등으로 분화하여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문법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국어는 첨가어(교착어)¹⁾적 특징을 보여 준다.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사와 어미를 이용하여 문장의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다음을 보자.

- (ㄱ) 철수가 카투사를 지원한다.
- (ㄴ) 철수도 카투사를 지원한다.
- (ㄷ) 철수가 카투사를 지원했다.
- (ㄹ) 철수가 카투사를 지원할까?

(ㄱ) ~ (ㄹ)의 의미 차이는 조사 ‘가, 도’와 어미 ‘-는다, -었-, -르까’에 의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에 의해 문법

1) 첨가어(교착어)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 요소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이나 문법적인 관계의 차이를 실현하는 언어를 말한다.

적인 기능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가 만들어진다. 예컨대, ‘높푸르다(높다 + 푸르다)’처럼 두 용언을 합하여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컴맹(컴퓨터 + 맹)’처럼 말을 줄여서 단어를 만들기도 하며, ‘덮밥(덮- + 밥)’처럼 용언의 어간과 명사를 합하여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눈물, 밤낮, 물불’처럼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는 매우 많다.

셋째, 한국어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등 어느 문장으로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I love you’는 가능하여도 ‘Love I you’, ‘Love you I’, ‘You love I’는 불가능하다.

넷째, 한국어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인다. 예컨대, 한국어는 ‘빨간 풍차’라고 하지 ‘풍차 빨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를 프랑스어로 하면 ‘물랭(풍차) 루주(빨간)’가 된다.

다섯째,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해 있다. 한국어는 ‘-(으)시-, -습니다, -(으)오’와 같은 어미나, ‘말씀, 치아, 진지’와 같은 높임말, 그리고 ‘-님’과 같은 접미사나 ‘-께서’와 같은 조사 따위를 사용하여 높임법을 실현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언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한국어, 한국어 교육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7,200만이 넘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의 언어로서 남·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중남미,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¹⁾ 최근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 한국어 사용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흔히, ‘한국어’와 ‘국어’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개념이 다른 용어이다.

❖ 한국어와 국어의 개념

한국어(Korean language)	국어(National language)
• 세계 언어 중의 하나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일컬음. •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 ‘국어 교육’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가리킨다.

1) 세계에는 5,000여 종이 넘는 언어가 있다. 이 중 불과 20여 개의 언어를 세계 인구의 70~80%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언어는 사용자 수가 고작 수백 또는 수천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어는 남한 4,400만 명, 북한 2,300만 명을 합쳐서 약 6,700만 명, 중국에 약 200만 명, 미국에 180만 명, 일본에 70만 명, 구소련 지역에 50만 명, 중남미 9만 명, 캐나다 7만 명, 기타 지역에 13만 명 등 호주, 유럽 등에 있는 동포들까지 합치면 사용 인구가 7,200만 명이 넘는다.



한국어 교육용 교보재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사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 한국인을 위한 주요 한국어 사전

사전 이름	편찬자	출판사 (출판 연도)	비고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1)	많은 용례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어문 규범을 따르지 않음.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두산동아 (1999)	500,000 단어 수록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에서 검색 가능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 언어 정보연구원	두산동아 (1998)	사용 빈도가 높은 50,000 단어 수록

❖ 외국인을 위한 주요 한국어 사전

사전 이름	편찬자	출판사 (출판 연도)	비고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사전	국립국어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한국어 학습자 사전	한국어세계화재단	신원프라임 (2006)	5,000개의 실용 단어 수록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사전	김하수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한편,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누리집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 자료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 어문 규범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신조어나 순화어 자료 등을 제공함.
- 문화관광부 누리집: <http://www.mcst.go.kr/hangeul>
– 입문자를 위한 한글 및 한국어 학습 사이트임.
- 한국어세계화재단 누리집: <http://www.webkorean.org>
–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련된 포털 사이트임.
- 한글학회 누리집: <http://www.hangeul.or.kr>
– 우리말 돌보기 자료를 제공함.
- 말터 누리집: <http://www.malteo.net>
– 국어 순화어를 찾기 위한 온라인 투표 사이트임.
-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http://www.iakle.com>
– 한국어교육 소식을 제공함.
- 이중 언어 학회: <http://www.korbiling.org>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국제 한국 언어문화 학회: <http://www.ink.or.kr>
–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함.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

- 한국 국제 교류 재단(<http://www.kf.or.kr>)
- 재외동포 재단(<http://www.okf.or.kr>)
- 한국어 세계화 재단(<http://www.glokorean.org>)
- 재외동포 교육진흥 재단(<http://www.efka.or.kr>)

한국의 4대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한국의 4대 어문 규범이라 한다. 한글 맞춤법은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 1. 19.)로 공표되었고, 표준어 규정은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 1. 19.)로 공표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 1. 7.)로 공표된 이래 네 차례 개정을 거쳐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5-32호(2005. 12. 28.)로 다시 공표되었다.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 7. 7.)로 공표되었다.

예컨대, ‘갈게’로 적어야 하는가, ‘갈께’로 적어야 하는가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문제이고, ‘강낭콩’이 맞는가, ‘강남콩’이 맞는가는 표준어 규정과 관련한 문제이며, ‘outlet’을 ‘아웃렛’으로 적어야 하는가, ‘아울렛’으로 적어야 하는가는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그리고 ‘한글’을 ‘hangeul’로 표기해야 하는가, ‘hangul’로 표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4대 어문 규범을 잘 익혀 두어야 올바른 말글살이를 할 수 있다. 4대 어문 규범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1. 한글 맞춤법¹⁾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서 보듯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1) 정희창(2008)에서 따옴.

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소리대로 적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꿈]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꿈’으로 적고 [밥]이라고 소리 나는 말은 ‘밥’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대로 적을 경우 쓰기는 쉬워도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가령 ‘꽃’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꼬치 아름답따], [곶따 아름답따], [곶만 아름답따]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자. ‘꼬치, 곶또, 곶만’ 등은 모두 ‘꽃’이라는 명사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말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가 무척 어렵다. 글을 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이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표기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곶또, 곶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의 형태를 고정해서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쉬우므로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출], ‘꽃만’이라고 할 때의 [곶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출], [곶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ㄱ) 아름답-고
- (ㄴ) 아름답-다
- (ㄷ) 아름답-지

‘아름답고, 아름답다, 아름답지’를 보면 ‘아름답-’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꽃이’와 ‘꽃만’은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꽃이, 꽃만’은 ‘꼬치, 곧만’으로 적을 때와 마찬가지로 [꼬치]와 [곧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운], [아름다워]로 소리 나지 않고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용례는 한글 맞춤법을 잘 이해하여 바르게 써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는 잘못된 말임을 나타냄.)

- (1) ㄱ. 조용히 {하십시오/*하십시요}.
- ㄴ. {나무꾼/*나뭇꾼}과 선녀 이야기.

- (2) ㄱ. 게 섰거라.(← 서 있거라.)
- ㄴ. 였다.(← 여기 있다.)
- ㄷ. 발다리, 발벽, 발사돈(← 바깥)
- ㄹ. 오늘은 웬지(← 왜인지) 기분이 좋아.

- (3) ㄱ. 금을 반듯이(← 반듯하게) 그어라.
- ㄴ. 오늘 반드시(← 반듯하게) 끝내라.

- (4) ㄱ. 나이가 지긋이(← 지긋하게) 든 반백의 신사.
- ㄴ. 눈을 지그시(← 지긋하게) 감았다.

- (5) ㄱ. 일찍이(*일찌기) 문명을 꽃피운 우리나라.
- ㄴ. 비도 내리고 더욱이(*더우기) 바람도 세다.

- (6)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 ㄱ'. 멀리 날아가는(*날라가는) 비행기

- ㄴ. 거칠(*거칠은) 별판에 푸른 솔잎처럼
- ㄷ. 놀이터에서 노는(*놀으는) 아이들
- (7) ㄱ.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몇 일)이지?
- ㄴ. 며칠(*몇 일)을 쉬었더니 오늘이 며칠(*몇 일)인지 모르겠다.
- (8) ㄱ. 눈에 눈곱(*눈뽀)이 끼었어.
- ㄴ. 눈살(*눈썹)을 찌푸린다.
- (9) ㄱ. 이 나무로는 의자를 만들이(*만듬이) 좋겠다.
- ㄴ. 서울에서 3년간 살(*살음).
- ㄷ. 철수는 서울에 있음(*있습).
- ㄹ. 오늘은 보리밥을 먹음(*먹습).
- (10) ㄱ. 막-아, 뽀-아, 얹-아
- ㄴ. 먹-어, 죽-어, 뺄-어
- (11) ㄱ. 잠그-다, 잠-가, 잠그-니 / 담그-다, 담-가, 담그-니
- ㄴ. 머무르-다, 머물러 / 들르-다, 들러
- ㄷ. 너희 둘이 사귀어(*사겨) 보면 어떨까?
- ㄹ. 내 것과 네 것이 바뀌었어(*바꼈어).
- (12) ㄱ. 철수는 고등학생이 됐다(← 되었다).
- ㄴ. 자식이 돼서(← 되어서) 그게 할 소리냐?
- ㄷ. 저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요(← 되어요).
- ㄹ. 다음 물음에 올바른 답을 쓰라/쓰라.
- (13) ㄱ. 무엇을 할까요.
- ㄴ. 말씀 낫추십시요(*-요).



- (14) ㄱ. 다음 물음에 ‘예, 아니요(*아니오)’로 답하시오.
 ㄴ. 밥 먹었니? 아니요(*아니오).
 ㄷ. 나는 의사가 아니오(*아니요).
 ㄹ.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 (15) ㄱ.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ㄴ.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ㄷ. 신년-도, 구년-도, 고령-지
 ㄹ. 가정란,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ㅁ.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gossip欄)
 ㅂ. 노동량, 작업량
 ㅅ. 일양, 알칼리양(alkali量)
 ㅇ.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ㅈ.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ㅊ. 법률(法律), 능률, 출석률
- (16) ㄱ. 시냇가, 찻잔, 나뭇잎, 툇마루
 ㄴ. 기댓값, 대푯값, 만뫯국, 등푯길, 성뫯길, 장뫯뫯, 맥쫯집
 ㄷ. 궂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횃수(回數)
 ㄹ. 초점(焦點), 개수(個數),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ㅁ. 머리말/*머릿말, 인사말/*인삿말
 ㅂ. 핑크뫯, 피자집
 ㅅ. 개나리길, 은행나무길, 배호길
- (17) ㄱ. 강아지가 고기를 넙쫯 받아 먹는다.
 ㄴ. 하인이 넙쫯 절을 한다.
 ㄷ. 무를 넙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궂다.
 ㄹ. 넙적다리, 넙따랗다, 넙치[廣魚]

- (18) ㄱ. 반창고를 붙이다, 주석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ㄴ. 따귀를 올려붙이다, 소매를 건어붙이다, 계획대로 밀어붙이다
 ㄷ. 편지를 부치다, 극비에 부치다, 한글날에 부치다
 ㄹ.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 (19) ㄱ. 오이소박이/*오이소백이, 차돌박이/*차돌백이/*차돌배기
 ㄴ. 불박이, 덧니박이, 판박이
 ㄷ. *한 살박이/한 살배기
 ㄹ.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 (20) ㄱ.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물을 마셨다.
 ㄴ. 밥을 먹었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ㄷ.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물을 마셨다.
- (21) ㄱ. 영희가 그러는데 철수가 결혼한대.
 ㄴ. 철수도 오겠대?
 ㄷ. 왜 이렇게 일이 많대?
 ㄹ. 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 생겼대?
 ㄱ. 두 살배기가 아주 말을 잘하네.
 ㄴ. 철수는 아들만 둘이네.
 ㄷ. 동네 어른들도 오셨디?
 ㄹ. 철수가 그 일을 해내겠디?
- (22) ㄱ. 익숙하지 → 익숙지, 넉넉하지 → 넉넉지, 깨끗하지 → 깨끗지,
 섭섭하지 → 섭섭지
 ㄴ. 청하건대 → 청컨대, 무심하지 → 무심치, 연구하도록 → 연구
 토록, 간편하게 → 간편케



2. 표준어 규정

표준어란 원칙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일컫는다. 말은 시대와 장소와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들을 고정해 두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표준어를 두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어란 여러 지역어 가운데 하나인 서울말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언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과 같은 것이다.

다음과 같은 표준어는 헛갈리는 것이므로 잘 숙지하여 바르게 써야 한다.
(다음에서 *가 붙은 말은 비표준어임.)

(1) 강남콩(*강남콩)

☞ 강남콩(*강남콩)을 까다.

(2) ㄱ. 오횇이(*오횇기)

☞ 오횇이(*오횇기)가 쓰러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난다.

ㄴ. 깡충깡충(*깡충깡충), 쌍둥이(*쌍둥이)

☞ 토끼는 깡충깡충(*깡충깡충) 뛴다.

☞ 쌍둥이(*쌍둥이) 빌딩

(3) 부조(*부주), 사돈(*사둔), 삼촌(*삼춘)

☞ 결혼식 부조(*부주)

☞ 사돈(*사둔)을 맺다.

☞ 삼촌(*삼춘) 못난이 조카 장물 짐 진다.

(4) 갈아(*갈애)

☞ 네 말이 맞는 것 갈아(*갈애).

(5) ㄱ. 미장이(*미쟁이)

☞ 목수는 집을 짓고 미장이(*미쟁이)는 벽을 바른다.

ㄴ. 점쟁이(*점장이)

☞ 그는 용한 점쟁이(*점장이)만 났다 하면 달려간다.

(6) 아기(*애기)

☞ 아기(*애기) 다람쥐

(7)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람(*바람)

☞ 아이의 잘못을 호되게 나무라다(*나무래다).

☞ 내가 잘못으면 하는 바람(*바람)이다.

(8) 주책없다(*주책이다)

☞ 넌 왜 그렇게 주책없니(*주책이니)?

(9)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 무엇인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하여 안절부절못하는(*안절부절하
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쓰럽게 보였다.

(10) ㄱ. 웃어른(*윗어른)

☞ 웃어른(*윗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ㄴ. 위층(*우층)

☞ 식당은 위층(*우층)에 있습니다.

(11) 녁쿨, 덩쿨(*덩쿨)

☞ 담쟁이녕쿨(*담쟁이덩쿨) / 담쟁이덩쿨(*담쟁이덩쿨)

(12) 천둥, 우뢰(*우뢰)

☞ 천둥이 치다. / 우뢰(*우뢰)가 치다.



(13) 깨다(*개이다)

☞ 날씨가 활짝 깨다(*개이다).

(14) -르는지(*-르런지)

☞ 그 일을 할 수 있을는지(*있을런지) 모르겠어.

(15) 셋째(*세째), 넷째(*네째)

☞ 셋째(*세째) 줄에 앉다. / 넷째(*네째) 딸

(16) 삼가다(*삼가하다)

☞ 말을 삼가다(*삼가하다).

한편, 다음과 같은 말은 복수 표준어이다.

(1) 가엸다, 가엽다

☞ 한꺼번에 부모를 잃은 그 애가 가엸다(가엽다).

(2) 귀걸이, 귀고리

☞ 귀걸이(귀고리)를 달다.

(3) 깨뜨리다, 깨트리다

☞ 분위기를 깨뜨리다(깨트리다).

(4) 쇠고기, 소고기

☞ 쇠고기(소고기) 반찬

(5) 여쭙다, 여쭙다

☞ 사돈어른께 인사를 여쭙다(여쭙다).

(6) 옥수수, 강냉이

☞ 밭에 옥수수(강냉이)를 심다.

(7) 우렁챙이, 멧개

☞ 우렁챙이(멧개)는 멧개과의 원색동물이다.

(8) 자물쇠, 자물통

☞ 자물쇠(자물통)을 풀다.

(9) 차차, 차츰

☞ 날씨가 차차(차츰) 좋아진다.

(10) 혼자되다, 홀로되다

☞ 그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혼자되었다(홀로되었다).

3. 외래어 표기법²⁾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로 외국의 문물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거나, 우리말이 있어도 의미상에 변화를 주고자 외국어 어휘를 국어에 동화하여 국어 어휘로 사용하는 말이다.

외국어 어휘가 외래어로 정착되는 기간이나 방식은 각 어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외국어와 외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대체적으로 외래어는 발음, 형태, 의미에서 원래의 외국어와는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발음에서 ‘fighting[faitɪŋ], radio[reidiou]’의 [f]나 [r]은 국어에는 없는 음으로 이를 표기할 문자 역시 없다. 따라서 이들을 국어음으로

2) 김수현(2008)에서 따옴.



변형하여 각각 [ㅍ]과 [ㄹ]로 발음하고 ‘파이팅, 라디오’로 표기한다. 형태상의 변형은 형용사나 동사인 외국어 어휘에 국어 조어법을 적용하여 가령 ‘simple[simpl] + 하다 → 심플하다, study[stʌdi] + 하다 → 스타디하다’와 같이 ‘-하다’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의미상의 변형은 외국어의 고유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meeting[mi:tiŋ] 미팅’은 원래의 의미인 ‘회의’와 더불어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garden[ga:rdn] 가든’은 요식업체의 상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으로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래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표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외래어 사용 초기에는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v]를 ‘ㅂ’, [f]를 ‘ㅍ’으로 적는 경우가 있었고, 장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붙임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가장 이상적인 표기는 외래어의 음운을 국어의 자모와 1 : 1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f]나 [r]과 같이 국어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외국어 음을 하나의 국어 자모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제3항은 외래어의 받침은 국어 표기와 달리 ‘ㄱ, ㄴ, ㄷ, ㅁ, ㅂ, ㅅ, ㅇ’ 7개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커피숍, 코너킥’과 같은 표기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국어의 경우 ‘ㅅ, ㅈ, ㅊ, ㅌ, ㅍ’ 등의 대표음은 ‘ㄷ’인데 외래어는 ‘ㅅ’을 대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 어휘의 경우, 가령 ‘빛, 빗, 빙’의 발음은 [빔]이나 모음을 결합하면 ‘빗 + 이[비시], 빗 + 이[비지], 빙 + 이[비치]’와 같이 실현되듯이 외래어의 경우도 ‘인터넷 + 이[인터넷시], 디스켓 + 이[디스케시]’로 그 음가가 ‘ㄷ’이 아닌 ‘ㅅ’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국어의 자모로 모든 외국어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어의 무성파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파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외래어 표기 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부분의 언중이 사용하여 온 어휘 가운데 표기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몇몇 어휘는 표기법에 적용하지 않고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radio[reidiou]’는 표기법 상으로는 발음기호에 따라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고, ‘camera[kæməɾə]’는 ‘캐머러’로 적어야 하나 관용을 인정하여 각각 ‘라디오, 카메라’로 적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외래어는 헛갈리는 것이므로 잘 숙지하여 바르게 써야 한다.

:: 파열음 ::

어두에 파열음이 올 경우 표기 원칙에 따라 무성파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파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는다.

- (1) trio[triou] 트리오
- double[dʌbl] 더블
- bus[bʌs] 버스



무성파열음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 받침으로 적거나 ‘으’를 붙여 적는다. 일반적으로 영어 이외의 경우는 ‘으’를 붙여 적으면 되나, 영어의 경우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는 이중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2) robot[rɒbɒt] 로봇
internet[intənet] 인터넷
cake[keik] 케이크
tape[teip] 테이프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있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사이의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한다.

- (3) lipstick[lipstik] 립스틱
napkin[næpkin] 냅킨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sickness[siknis] 시크니스

유성파열음의 경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head[hed] 헤드
herb[hə:b] 허브
gagman[gægmæn] 개그맨

다음은 관용을 존중하여 규칙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이다.

- (5) hip[hip] 히프
 set[set] 세트
 bag[bæg] 백
 web[web] 웹

:: 마찰음 ::

마찰음 [f]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모음 앞에서는 ‘프’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로는 마찰음 [f]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 (6) fighting[faitɪŋ] 파이팅
 fantasy[fæntəsi] 판타지
 frypan[fraipæn] 프라이팬
 graph[græf] 그래프

마찰음 [s]는 [s]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 [s]가 어말에 올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서 명시하였듯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사 소리인 ‘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7) service[sə:rvis] 서비스
 center[sentər] 센터
 sauna[saunə] 사우나
 sign[sain] 사인
 dance[dæns] 댄스

마찰음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 등으로 적는다.



- (8) shrimp[ʃrɪmp] 슈림프
 dash[dæʃ] 대시
 English[ɪŋɡlɪʃ] 잉글리시
 shopping[ʃɒpɪŋ] 쇼핑
 leadership[liːdərʃɪp] 리더십

:: 파찰음 ::

국어에서는 ‘ㅈ, ㅊ’ 같은 구개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ㅈ, ㅊ’을 지닌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에도 ‘ㅈ’이나 ‘ㅊ’ 뒤에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자, 주, 차’ 등의 이중모음 표기를 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 (9) television[telɪvɪʒən] 텔레비전
 juice[dʒuːs] 주스
 chance[tʃɑːns] 찬스
 chart[tʃɑːt] 차트

:: 유음 ::

유음 [l]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으며, 어중에서는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 앞에 올 때에는 ‘ㄹ’로 적는다. 다만 ‘Hamlet[hæmlɪt] 햄릿, Henley[henli] 헨리’와 같이 비음 ([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10) plaza[plɑːzə] 플라자
 clinic[klɪnɪk] 클리닉
 catalogue[kætəlɒɡ] 카탈로그
 club[klʌb] 클럽

:: 단모음 ::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의하면 [ə]와 [ʌ]는 ‘어’로, [æ]는 ‘애’로, [ɔ]와 [o]는 ‘오’로 적도록 되어 있다.

- (11) terminal[tə:rminəl] 터미널
 dollar[dalər] 달러
 color[kʌlər] 컬러
 honey[hʌni] 허니
 accessory[æksesəri] 액세서리
 talent[tælənt] 탤런트

‘con-’은 [kɒn-]과 [kən-]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중은 철자 ‘o’에 의해 ‘콘’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컨’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 철자가 아닌 발음기호에 의해 표기해야 한다.

- (12) concert[kɒnsər:t] 콘서트
 concept[kɒnsept] 콘셉트
 condition[kəndɪfən] 컨디션
 control[kəntroul] 컨트롤
 collection[kəlekʃən] 컬렉션

:: 이중모음 ::

이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spike [spaɪk] 스파이크, sauna[saunə] 사우나, skate[skeit] 스케이트’와 같이 [ai]는 ‘아이’, [au]는 ‘아우’, [ei]는 ‘에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 boat[bout] 보트
 pose[pouz] 포즈
 shadow[ʃædou] 섀도
 window[windou] 윈도
 power[pauər] 파워
 tower[tauə] 타워

:: 복합어 ::

복합어는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이는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한 것이다.

- (14) outlet[autlet] 아울렛
 make up[meikʌp] 메이크업
 headlight[hedlait] 헤드라이트

:: 인명 · 지명 ::

인명 · 지명의 표기는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Caesar 시저, Hague 헤이그’와 같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또한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와 같이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에도 관용을 따른다.

한편 중국의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孔子, 孟子’와 같은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공자, 맹자’로 표기하고, ‘毛澤東, 張國榮’과 같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따라 ‘마오쩌둥, 장궈룽’으로 표기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중국의 지명은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廣州(광저우), 杭州(항저우)’와 같이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일본의 인명·지명은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札幌(삿포로)’ 등과 같이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15) 鹿兒島 가고시마
 安倍晋三 아베신조
 海南 하이난
 鄧小平 덩샤오핑

‘京都, 東京, 上海, 黃河’와 같이 일본 및 중국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교토, 도쿄, 상하이, 황허’와 함께 ‘경도, 동경, 상해, 황하’를 쓸 수 있다.

- (16) 北海島 북해도/홋카이도
 大阪 대판/오사카
 萬里長城 만리장성/완리창청
 吉林 길림/지린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³⁾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컨대 ‘왕십리’의 경우, 표기는 ‘왕십리’이지만 발음은 ‘[왕심니]’이므로 로마자로는 ‘Wangsipri’가 아니라 ‘Wangsimni’로 적는다.

3) 권미영(2008)을 수정하여 실음.



로마자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맞춤법대로 ‘Wangsipri’처럼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발음은 우리가 하는 발음과 달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표기이므로 이처럼 발음대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로마자 표기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길이나 장소 안내 등의 관광 안내만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좀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여 세계와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마자를 공용 표기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기업명 ‘삼성’, ‘대우’, ‘현대’는 각각 ‘Samsung’, ‘Daewoo’, ‘Hyundai’로, 신문명 ‘조선’, ‘중앙’은 ‘Chosun’, ‘JoongAng’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표기를 살펴보면, ‘ㄷ’은 ‘woo’와 ‘oo’로, ‘ㅏ’는 ‘ae’와 ‘ai’로 ‘ㅈ’은 ‘ch’와 ‘j’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음운을 표기하는 로마자를 제각각 쓰는 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겠지만, 규범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있었는데, 로마자에 부호를 덧붙여 쓰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0년 7월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매륵과 라이샤워가 만든 ‘매륵라이샤워식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기법에서는 반달표(˘)와 어랫점(˙) 같은 부호를 로마자와 함께 쓰도록 하였다. 반달표(˘)의 경우, ‘ㅏ(ǎ)’와 ‘ㅓ(ũ)’를 표기하는 데 쓰도록 하였는데, 이 부호는 전산 처리가 불편하였다. 이러다 보니 ‘ㄷ’을 표기하는 데는 ‘u’를 쓰지 않고, ‘oo’나 ‘woo’처럼 잘못된 표기를 쓰게 된 것이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와 같이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개정된 표기법에서도 쓰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 반드시 써야 하고, 이름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국어의 로마자 전사 방식은 아래와 같다.



국어의 로마자 전사 방식

• 자음의 표기

ㄱ	g (모음 앞) k (자음 앞 또는 어말)
ㄴ	n
ㄷ	d (모음 앞) t (자음 앞 또는 어말)
ㄹ	r (모음 앞) l (자음 앞 또는 어말)
ㅁ	m
ㅂ	b (모음 앞) p (자음 앞 또는 어말)
ㅅ	s
ㅇ	ng
ㅈ	j
ㅎ	h

ㄲ	kk
---	----

ㅋ	k
---	---

ㄸ	tt
ㄴㄹ	ll

ㅌ	t
---	---

ㅃ	pp
ㅆ	ss

ㅍ	p
---	---

ㅊ	jj
---	----

ㅵ	ch
---	----



• 모음의 표기

ㅏ	ㅓ	ㅗ	ㅜ	ㅡ	ㅣ	ㅞ	ㅟ	ㅠ	ㅡ
a	eo	o	u	eu	i	ae	e	oe	wi

ㅑ	ㅕ	ㅛ	ㅠ	ㅝ	ㅜ	ㅗ	ㅜ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o	wae	we

ㅢ
ui

자음의 표기 시에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지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는 점과 ‘ㅇ’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 즉 받침으로 쓰일 때에만 소리([ŋ])가 나므로, ‘아’는 ‘a’로 적어야지 ‘nga’로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르’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르르’처럼 ‘르’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ㅢ’는 ‘l’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광희문 Gwanghuimun

(2)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구미 Gumi
- 옥천 Okcheon
- 월곶[월곤] Wolgot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처럼 ‘ㄹ’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

- 구리 Guri
- 설악 Seorak
- 칠곡 Chilgok
- 별내 Byeollae

(4)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백마[뱅마] Baengma
- 신문로[신문노] Sinmunno
- 종로[종노] Jongno

②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 알약[알랏] allyak

③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해돋이[해도지] haedoji
- 같이[가치] gachi
- 맞히다[마치다] machida

④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⁴⁾

- 좋고[조코] joko
- 놓다[노타] nota
- 잡혀[자펴] japyeo

4)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5)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압구정 Apgujeong
- 낙동강 Nakdonggang
- 죽변 Jukbyeon

(6)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중앙 Jungang / Jung-ang
- 반구대 Bangudae / Ban-gudae
- 세운 Seun / Se-un
- 해운대 Haeundae / Hae-undae

(7)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부산 Busan
- 세종 Sejong

(8)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9)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 제주도 Jeju-do
- 의정부시 Uijeongbu-si

(10)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남산 Namsan
- 속리산 Songnisan
- 금강 Geumgang

(11)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참고 문헌

❖ 기본 자료 ❖

- [01]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 [02] 국립국어원(2007),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원.
- [03] 국립국어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04] 국립국어원(2008),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5] 국립국어원(2008),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논문 ❖

- [01] 고성환(2008), '표준어 규정',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2] 권미영(2008), '로마자 표기법',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3] 김수현(2008), '외래어 표기법',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4] 김형배(2009),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5] 박종덕(2008), '한글 맞춤법',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 [06] 정호성(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 생활10-1, 국립국어원.
- [07] 정희창(2008), '한글 맞춤법',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참고 문헌

❖ 저서 ❖

- [01] 교육 인적 자원부(2007), 문법, 교학사.
- [02] 김형배(2008),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 [03] 박용찬(2007), 외래어표기법-세상 모든 글쓰기, 랜덤하우스코리아.
- [04] 박종덕(2008), 한글 맞춤법론, 파미르.
- [05]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 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 강의 자료 ❖

- [01] 이승재(2009), ‘한글과 한국어 교육’, 2009년도 주한 미8군 한국군 강의 자료.

편집: 정호성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팀 팀장/문학박사)
김형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교육팀 학예연구사/문학박사)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문학박사)

국립국어원 2009-3-8



한국어 · 국어 · 한글

2009년 4월 13일 인쇄

2009년 4월 17일 발행

발행인: 국립국어원 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75